

국어 로마자 표기법

I. 개정 추진 경위

전번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 심의회 외래어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제정하여 문교부가 1959년에 공포한 이후 근 24년간 사용되어 온 표기법이다. 그 동안 각급 학교 교과서, 정부 간행물, 지명, 도로명, 역명 등은 이 표기법에 따라 적어 왔으나, 일부 관공서, 영자 신문, 외국 기관 등에서는 1939년에 제정된 ‘머클·라이샤워 표기법’ 또는 혼합된 표기법을 사용하여 혼란과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문교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 사업을 추진하여 1984년 1월에 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1978. 6~9 현행 문교부 표기법의 문제점 분석 연구

1978. 10~11 국어 심의회(표기법 분과) 심의

1978. 12 개정 시안 발표

그 동안 여론 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1979.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최종안 마련. 그러나 더 추진 못하고 보류 상태에 있다가,

1981. 5 어문 관계 사업, 즉 맞춤법, 표준말, 외래어 표기법 문제와 더불어 학술원에 이관되었다.

1982. 1 어문 관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술원 인문 과학부 제 2분과 회의에서 어문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외래어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시작, 그 동안 여러 번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983. 6 문교부 최종 시안 마련

1983. 9 국무회의에 보고

1984. 1 고시함

II.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 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제 2 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항 1음운 1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표기 일람

제 1 항 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단모음 : ㅏ ㅓ ㅗ ㅛ ㅜ ㅠ ㅣ ㅐ ㅔ ㅚ

a ö o u ü i ae e oe

중모음 : ㅑ ㅕ ㅙ ㅟ ㅛ ㅜ ㅠ

ya yö yo yu yae ye üi

ㅘ ㅚ ㅞ ㅟ ㅜ

wa wo wae we wi

(붙임)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 2 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파열음 : ㄱ ㄲ ㅋ

k, g kk k'

ㄷ ㄸ ㅌ

t, d tt t'

ㅂ ㅃ ㅍ

p, b pp p'

파찰음 : ㅈ ㅊ ㅋ
ch, j tch ch'

마찰음 : ㅅ ㅆ ㅎ
s, sh ss h

비 음 : ㅁ ㄴ ㅇ
m n ng

유 음 : ㄹ
r, l

(붙임 1) ‘ㄱ, ㄷ, ㅂ, ㅈ’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ㅁ, ㅇ’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소리날 때에는 각각 ‘g, d, b, j’로 적고 이 외에는 각각 ‘k, t, p, ch’로 적는다.

[보기] 가구 kagu 바둑 paduk 갈비 kalbi
제주 Cheju 담배 tambae 받침 patch'im

(붙임 2) ‘ㅅ’은 ‘시’의 경우에 ‘sh’로 그 외에는 ‘s’로 적는다.

[보기] 시루 shiru 신안 Shinan 신촌 Shinch'on
부산 Pusan 상표 sangp'yo 황소 hwangso

(붙임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서는 ‘l’로, ‘ㅍ’은 ‘ll’로 적는다.

[보기] 사랑 sarang 물건 mulgön 발 pal
진달래 chindallae

제 3 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 1 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냇물 naenmul 부엌문 puōngmun 낚는다 nangnūnda
닫는다 tannūnda 갇는다 kamnūnda 진리 chilli
심리 shimni 압력 amnyōk 독립 tongnip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가랑잎 karangnip 낮일 nannil 담요 tamnyo
 홀이불 honnibul 풀잎 pullip 물약 mu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굳이 kuji 해돋이 haedoji 같이 kach'i

4. ‘ㄱ, ㄷ, ㅌ, ㅍ’이 ‘ㅇ’과 어울려 나는 경우

[보기] 국화 kuk'wa 낱다 nat'a 밝히다 palp'ida
 맞히다 mach'ida

(불입)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보기] 장기(長技) changki 사건 sakön 냇가 naetka
 작두 chaktu 신다 shinta 산불 sanpul

제 2 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는 ‘-’ (짧은줄표)를 써서 따로 적는다.

[보기] 장이 chang-i 잔기(殘期) chan-gi
 물가에 mulka-e 종로에 Chongno-e

(불입) 인명과 행정 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 (짧은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 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김복남 Kim Pok-nam 사북면 Sabuk-myön

제 3 항 고유 명사는 첫 소리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인천 Inch'ön 대구 Taegu 세종 Sejong

제 4 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여 띄어쓰고, 이름 사이에는 ‘-’ (짧은줄표)를 넣는다. 다만,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를 생략할 수 있다.

[보기] 김 정호 Kim Chöng-ho 남궁 동자 Namgung Tong-cha
 손 미희자 Son Mi-hüi-cha 정 마리아 Chöng Maria
 한 하나 Han Hana

제 5 항 제 2 항 붙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hi, gun, gu, ūp, myŏ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 (짧은줄표)를 넣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ōngbuk-do

제주도 Che ju-do 의정부시 Ūijōngbu-shi

파주군 P’aju-gun 도봉구 Tobong-gu

신창읍 Shinch’ang-ŭp 주내면 Chunaemyŏ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Tangsan-dong

봉천 2동 Pongch’ōn 2-dong

종로 2가 Chongno 2-ga 퇴계로 5가 T’oegyero 5-ga

(붙임) 특별시, 직할시, 시, 군, 읍 등의 행정 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보기] 부산 직할시 Pusan 신창읍 Shinch’ang

제 6 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 없이 붙여쓴다.

[보기] 남 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 강 Kūmgang 독 도 Tokto

해운대 Haeundae 경복궁 Kyōngbokkung

도산서원 Tosansōwon 불국사 Pulguksa

현충사 Hyōnch’ungsa 독립문 Tongnimmun

오죽헌 Ojuk’ōn 축석루 Ch’oksōngnu

종 묘 Chongmyo 다보탑 Tabot’ap

무량수전 Muryangsujōn 연화교 Yōnhwagyo

극락전 Kūngnakchōn 석굴암 Sōkkuram

안압지 Anapchi 남한산성 Namhansansōng

(붙임) 5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낱말 사이에 ‘-’를 쓸 수 있다.

[보기]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Kūmdong-mirūkposal-pan-gasang

제 7 항 고유 명사의 표기는 국제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허용한다

[보기]	서 울	Seoul	이순신	Yi Sun-shin
	이승만	Syngman Rhee	연 세	Yonseï
	이 화	Ewha		

제 8 항 인쇄나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ö, ü, yö, üi 등의 ‘˘’(반달표)와 k', t', p', ch'들의 ‘,’(어깨점)을 생략할 수 있다.

Ⅲ. 해 설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 항. 로마자 표기를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원칙은 과거에 정자법, 즉 맞춤법에 따른 표기에서 표음주의로 바뀐 큰 변동이다. 우리 맞춤법은 발음대로 적되 形態素를 밝히어 적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과 표기가 어긋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독립문(獨立門, Doglibmun) 종로(鍾路, jongro), 이렇게 써 왔으나, 실제 발음은 [동닙문], [중노]가 된다. 외국인에게 맞춤법에 따른 표기보다 실지 발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 더 소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문(Doglibmun→Tongnimmun), 종로(jongro→Chongno)로 바꾸게 된 것이다.

제 2 항. 로마자는 정확한 표음문자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a는 after [á:ftər], again[əgén], agent[eidʒənt], apple[æpl], air[ɛər]들 여러 가지 발음을 가졌고, 또 국어 발음에 꼭 부합하는 로마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많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우리말 ㅓ, ㅡ 들 모음에 해당되는 로마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ㅓ(eo), ㅡ(eu)로 써 왔으나, 외국인의 대부분이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하여 실제 우리 발음과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ㄱ(ö), ㅡ(ü), ㅋ(k'), ㅌ(t'), ㅍ(p'), ㅊ(ch') 이렇게 부호를 붙여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 8항에서 지적하듯 이런 부호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항. 1음운 1기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ㅏ(ae), ㅑ(ya), ㅓ(yae)나(wa), ㅕ(kk), ㅛ(ch), ㅜ(tch)와 같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한다.

제 2장 표기 일람

제 1항. 모음의 예는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될 것이다.

제 2항. 자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ㄱ, ㄷ, ㅂ을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선 이들 파열음은 무성음이 원음이지만 유성음 다음에선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감기[kamgi], 단도[tando]. 이렇게 우리말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을 전혀 모르는 음운 체제가 되어서 ㄱ 또는 ㄷ 한 글자로 표기하지만, 외국어의 대부분이 무성음과 유성음이 엄격히 대립되는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cold[kold], gold[gold], to[tu:], do[du:]. 여기에 또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말에선 무기음과 유기음의 대립이 분명하여 ㄱ : ㅋ, ㄷ : ㅌ, ㅂ : ㅍ 이렇게 다른 문자로 표기되지만, 외국어에선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을 못하고 하나로 다루고 있다. 영어에서 예를 보아도 k, t, p들은 유기음 [k^h, t^h, p^h]로 발음된다. king[kin], tent[tent], pen[pen]. 그러나 무기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skill[skil], still[stil], spill[spil]들 s음 다음에선 무기음으로 발음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없어, ㄱ, ㄷ, ㅂ은 언제나 하나로 보이지만,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엄격히 존재하는 외국인에게, 감기[kamgi], 단도[tando], 이렇게 같은 ㄱ, ㄷ음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파악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에선 ㄱ과 ㅋ, ㄷ과 ㅌ은 분명히 다른 음운이지만 외국어의 대부분이 이 구별을 모르고 하나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M-R 표기법에 따르는 외국인인 김포(Kimpo), 부산(Pusan) 이렇게 적어 왔었다. 즉 국어에선 ㄱ[k, g], ㄷ[t, d], ㅂ[p, b]로 나타나고,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에선 k[k, k^h-ㄱ, ㅋ], t[t, t^h-ㄷ, ㅌ], p[p, p^h-ㅂ, ㅍ], 이런 음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ㄱ(g)-ㄱ(gg)-ㅋ(k), ㄷ(d)-ㄷ(dd)-ㅌ(t) 이런 체계를 ㄱ(k, g)-ㄱ(kk)-ㅋ(k'), ㄷ(t, d)-ㄷ(tt)-ㅌ(t'), ㅂ(p, b)-ㅂ(pp)-ㅍ(p') 이런 체계로 바꾼 것은 외국인의 음운 체계에 맞도록 무성음의 경우와 유성음의 경우를 밝혀 준 것이다. 다만 k', t', p', ch'의 어깨점(')은 생략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파찰음 ㅈ(ch, j), ㅊ(tch), ㅉ(ch') 표기의 원칙도 성립된다. 그리고 ㅅ은 i모음과 연결될 때는 sh[]로 표기하는 것, 유음에서 r음을 r, l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도 외국인의 음운 체계에선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 1 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된 결과에 따라 적는다는 것은 맨 먼저 나온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제 2 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는 '-'를 쓰게 한 조항을 예에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changi로만 쓰면 장이(chang-i)인지 잔기(chan-gi)인지 분명하지 않고, 물가에(mul-kae)도 이렇게 쓰면 '물개'가 되며, 종로에(chongnoe)도 '종늬'가 되기 때문이다.

(붙임) 인명과 행정 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 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유 명사는 그 원형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복남(Kim Pok-nam)은 실제 발음은 자음동화를 일으켜 [Pong-nam]으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진 이름의 본 뜻과 멀어진다.

제3—4항. 고유 명사의 첫소리를 대문자로 적는 것은 세계 일반적인 통례에 따른 것이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고, 이름 사이에는 ‘-’를 넣지만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과거 인명 표기에 원칙이 없어 혼란이 많았던 것을 통일시킬 것이다. 한자는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될 것이요, 마리아(Maria), 하나(Hana)와 같은 외래어 또는 고유어의 이름은 그것이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5항. 이 조항은 행정 구역 단위명을 고정시키고, 그 앞에 ‘-’를 넣어 붙여 쓰라는 것이다. 즉 ‘도’의 예를 가지고 보면 충청북도(Ch’ung ch’öngbuk-to), 제주도(Cheju-do), 이렇게 두 가지 발음으로 나오지만, do 하나로 고정시키란 뜻이니, 과거의 표기법과 대조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제6항. 이 조항도 과거의 표기법과 대조해 보면 정확하고 간편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7—8항. 제7항은 과거의 표기법에 그대로 따른 것이요, 제8항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IV. 표기법 대조표

구 분	개 정 표 기 법	참 고(현행표기법)	비 고
표 기 의 기 본 원 칙	표음주의 독립문 Tongnimmun	정 자 법 Doglibmun	
모 음	어 ö 으 ü 거북선 Köbüksön 의정부 Uijöngbu	어 eo 으 eu Geobugseon Euijeöngbu	· 반달표(˘)의 생략 허용 Kobuksön Uijöngbu

구 분	개 정 표 기 법	참 고(현행표기법)	비 고
자 음	ㄱ ㄲ ㅋ k·g kk k' ㄷ ㅌ ㅌ' t·d tt t' ㅂ ㅃ ㅍ p·b pp p' ㅈ ㅉ ㅊ ch·j tch ch' · ㄱ, ㄷ, ㅂ, ㅈ은 유성음 사이에서는 g, d, b, j로 그 외는 k, t, p, ch로 표기 가 구 kagu 꺾 꺾 kukka 바 뚝 paduk 제 주 Cheju 추 풍 령 Ch'up'ungnyōng	ㄱ ㄲ ㅋ g gg k ㄷ ㅌ ㅌ' d dd t ㅂ ㅃ ㅍ b bb p ㅈ ㅉ ㅊ j jj ch gagu gugga badug Jeju Chupungryeong	· k', t', p', ch' 의 어깨질(') 생략 허용 Chupung- nyong
인 명	·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쓰고, 이름 사이에는 '- '를 넣는다. 김 정 호 Kim Chōng-ho 장 복 남 Chang Pok-nam	Gim Jeong-ho Jang Bog-nam	
행 정 구 역	· 도·시·군·구·읍· 면·리·동의 행정 구 역 단위는 -do, -shi, -gun, -gu, -ūp, -myōn, -ri, -dong으 로 표기한다. 중 료 구 Chongno-gu	· 행정 구역 단위는 대 버자로 띄어 쓴다. Jongro Gu	

구 분	개 정 표 기 법	참 고(현행 표기법)	비 고
	전라북도 Chöllabuk-do 신창읍 Shinch'ang-ŭp 인왕리 Inwang-ri 사북면 Sabuk-myŏn 수원시 Suwon-shi	Jeonra Bug Do Shinch'ang Eub Inwang Ri Sabug Myeon Suweon Si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 명	·자연 지물명·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 없이 붙여 쓴다. 수리산 Songnisan 남산 Namsan 독도 Tokto 금강 Kūmgang 불국사 Pulguksa 석굴암 Sökkuram 경복궁 Kyōngbokkung	·용례집에 예시됨. Sogri Mt. Namsan Mt. Dogdo I. Geumgang R. Bulgug Temp. Seogguram Gyeongboggung(Pal.)	
관 용	·국제 관계 및 종래 관 습적 표기의 관용 허용 서울 Seoul 이승만 Syngman Rhee 연세 Yonsei	·명문 규정 없음. Seoul Syngman Rhee Yonsei	